



2025년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 청년 지원 프로젝트

[빛을 잇는 사람들]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역사투어



목차

01

프로젝트 개요

02

프로젝트 활동 내용

- 사전 워크숍
- 학생 교육
- 민주주의 역사투어 진행

03

학생 소감 및 피드백

04

예산 집행 내역

05

프로젝트 결과 및 제언

06

아카이브 공유

프로젝트 개요

추진 일정

- 2025년 8월: 기획 및 준비, 사전워크숍
- 2025년 9월: 학생 사전 교육
- 2025년 10월: 반딧불이 민주주의 투어 -> 민주주의 역사투어 실시
- 2025년 10월: 프로젝트 환류

참여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27명
- 연령: 만 14세~17세
- 지역: 대전
- 대상: 교내 동아리 학생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투어 사업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역사적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프로젝트 활동 ① 사전 워크숍

01

워크숍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2일, 30일
- 장소: 대전삼천중, 인근 식당, 카페
- 참석자: 빛잇사 팀원
- 진행 시간: 총 4시간
- 목적: 프로그램 방향성 수립
사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 내용: 민주주의 교육 방법 공유
세부일정 조율



+

프로젝트 활동 ② 학생 사전 교육

+



+

프로젝트 활동 ③ 민주주의 역사 투어

01

옛대전형무소터

- 대전 근현대사의 고통과 아픔이 서려 있는 근대유산
- 1919년 5월 대전감옥으로 시작하여 1984년 3월까지 65년간 운영. 대전형무소(1923), 대전교도소(1961)로 명칭 변경
-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 시기에 독립운동가, 민주 인사 등이 투옥된 장소

02

한밭교육박물관

- 황국신민서사지주는 1930년대 후반 제작 추정, 산내 초등학교에서 발견 현재의 위치로 옮김
- 어떤 내용을 담은 비석 이길래.. 왜? 쓰려져 있을까?
- 건물에 총탄 자국은 왜 있을까?
- 또 하나의 특별한 비석은 무엇일까?

03

대동하늘공원

- 대전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공원
-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촬영
- 대동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대동1번지 사람들의 이야기
- 대전의 아름다운 야경 감상

04

소감나누기및피로백

- 민주주의 역사투어를 하며 느꼈던 점
-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



프로젝트 활동 ④ 소감 및 피드백 나누기

+

민주주의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

친구랑 반례에 얽매는 것보다 좋아. 한두개만 한다면
이런 편한한 기분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게 아니다. 따르게 강제했다.
야경뿐만 아니라 몰랐던 예전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팔 수 있어서
좋았고, 허설사님 설명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집중하기
좋았다.

약간 비오는 밤하늘이
민주주의 느낌 ㅋㅋ
아늑함 편한함
아무말안해도 알것같은 것

대전을 잘 알게 되어 좋았다.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보는 개구리였는데 도랑 밖은 모였는데 오늘
본것들을 일리 얻어내고 싶다 다 알았다.

한밭교육박물관에서 비석이 그냥 들면 재미있는 것과 눈의 기억이 담긴 돌이랑 ~~차이~~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우리 옛 세대의 민족 정신을 엿보며 당시의 아픔과 기억해야 할 과거를
알게 되었다.

시험에 나오는거 말고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름만 알고 있던 과거 인물들의 행적을 쫓아 줄의 삶을 따라가는
과정의 감동을 주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두어하니 더 편한 느낌이었다. 잘 오르신 역사에
대해서도 생생함이 더 좋았다.

오늘 평소 가던 길에도 역사가 있다는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가는 지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④ 소감 및 피드백 나누기

+

연대를 바꾼다는 것은 그냥 코를 뚫는 게 아니라 그 거리에
의미가 담겨야 한다.

공공건에서 보는 대안이 아름다웠다.
이걸 볼 수 있는 계대를 주셔서 감사했다.

평소 역사를 싫어했는데 민주주의, 역사 등 어려운
말들이 합쳐져서 재미 없을 것 같았는데
유익한 시간이였다.

우물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공원에서는 편했는데 그 차이가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평화인 것 같았다.
형무소를 구경하는 빨간 선과 무릎가 안에 들어가니 공기가 확
달라졌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래된 학교를 보며 내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게
값싼 일구나 싶었다.

충탄자국이 남은 벽을 보며, '평화'라는 말이
진짜 멀고 어렵게 느껴졌다.

벽에 새겨진 흔적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던 사람도 나처럼 두려웠을지"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생을 품고 있는 누굴까?
대전 4공국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왔다.

초등학교에 옛날에 박힌 충탄자국이
보이는 것이 신기했다.

기억하지 않는 주체는 어떻게 될까... 다시금 생각
해보며 아픔의 땅도 우리의 초승달을 기억
해줘야 할 것 같다.

대전 형무소에서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한밭교육박물관의 외벽에 충탄이
박힌 자국들이 있다는 것 등 한밭교육박물관에 대해
알고 가봤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학교를 보며 내가 지금 이렇게 배
우는 일구나 싶었다.

예산 집행 결과

운영비

- 엽서 500원x20세트 = 10,000원
- 협동게임 도구 22,100원 x 4세트 = 88,400원

사업추진비 및 기타

- 반딧불이 도시락비 15,000원 x 32개 = 640,000원
- 역사투어 도시락비 4,800원 x 32개 = 153,600원
- 사전워크숍 식비 10,000 x 4명 = 40,000원
- 사전워크숍 다과비 4,500x 4명 = 18,000원

인건비 및 임차비

- 문화해설사 2명(교당 1명) x 1일 x 20,000원 = 400,000원
- 사진작가 1명 x 250,000원 x 1일 = 250,000원
- 45인승 버스임차비 1대 x 1일 = 400,000원

합계 2,000,000원

마무리 및 질의응답



이번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투어는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

- 참여 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이해 증진과 또래와의 공유
- 학교, 지역사회, 시민단체 협력 모델 구축
- 청소년 주도 민주시민 프로젝트 발굴

+

.

아카이브 시청!



